

전 남

‘슬로시티’ 증도 피서인과 ‘몸살’

연륙교 개통후 관광객 5배로 늘어나

쓰레기도 4배가량 늘어 수거 안간힘

지난 2007년 12월 ‘슬로 시티’ (Slow City)로 지정된 신안 증도가 연륙교 개통 이후 몰려드는 피서객과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육지인 신안군 지도읍과 증도를 연결하는 길이 900m의 증도대교가 지난 3월 개통되면서 ‘느림과 여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섬문화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연륙교 개통이후 섬주민들의 육지 나들이가 수월해진 반면 이번 피서철에는 지난해에 비해 피서객이 5배, 쓰레기

는 4배가량 증가하며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연륙교 개통으로 당일 일이 아닌 장기로 머무르는 피서객도 증가했다.

지난 14일 하루에만 차량 2000여대, 피서객 1만여명이 증도를 찾았다. 지난해 피서철에 매일 8이던 쓰레기는 30t으로 크게 늘었다.

송림이 우거져 야영하기 좋은 우전해수욕장은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하지만 우전 해수욕장과 해송숲속에 조성된 길이 6km·너비 2m 가

량의 월빙 산책로는 텐트 600여개가 뿔뿔하게 들어서 걷기조차 힘들다.

또 산책로에 조성된 50~100년생의 소나무 주변에는 피서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들이 널려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백사장에도 밤새 캠프파이어 등을 한 피서객들이 제대로 뒷정리를 하지 않아 검은 재가 곳곳에 흩어져 있고 군데군데 개진 병들이 위태롭게 방치돼 있다.

갯벌 체험장도 갯벌로 이어지는 다리의 난간에 일부 부서져 폐쇄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더욱이 ‘금연의 섬’으로 선포된 섬에는 피서객들의 담배꽂이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어 군의 ‘청정 섬 만들

기’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증도면사무소는 매일 인부 8명을 동원해 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밀려드는 피서객들의 공중도덕 실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상률 증도면장은 “휴가도 못하고 쓰레기를 치우면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연륙교가 개통되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신안군은 증도대교 입구에 3만413㎡(9200평)의 부지에 7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다. 연말부터 승용차 대신 전기 셔틀버스와 자전거·우마차 등으로만 증도를 여행하게 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벼 세우기 작업 한창

보성군 공무원과 주민·자원봉사자들이 최근 웅치면 강산리 들녘에서 제4호 태풍 ‘멘무’의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쓰러진 벼를 세우고 있다. 이번 벼세우기 농촌 일손돕기에는 500여명이 참여했다. (보성군 제공)

녹동~서울 고속버스 2년간 부당요금

고흥군, 독점 운행업체 적발

녹동~고흥~서울간을 독점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송업체가 2년 가까이 부당요금을 징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흥군은 시외버스 운송업체인 K고속이 고흥(도양)~서울간 요금을 최대 1100원 더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전남도에 과징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업체는 2008년 11월 10일 장성~담양간 광주 외곽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까지 거리가 14.7km 줄었으나 기존 요금을 그대로 받았다.

기존에는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 동광주 나들목을 거쳐 순천~고흥으로 운행했으나 외곽도로 개통과 함께 장성~담양~순천으로 연결됐다.

전남도는 같은해 11월말 해당 업체

에 서울~도양간 기준으로 일반과 우등고속 요금을 각 700원과 1100원 내린 2만2500원과 3만3500원을 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업체는 기존 요금인 2만3200원과 3만4600원을 최근까지 받아왔다.

이 업체가 고흥~서울 구간을 독점 운행하고 1일 왕복 10회 운행하면서 200명 안팎의 승객을 실어나른 점을 고려하면 최대 6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고흥군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부당요금 징수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부당요금 환수 등의 대책 마련을 전남도에 요구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국립 산림과학원·광양 남도임업 법인 지역 맞춤형 환경수종 개발 나서

국립 산림과학원과 광양지역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광양에 적합한 맞춤형 환경정화수종 개발에 나섰다.

15일 광양시에 따르면 산림과학원과 광양 소재 산림법인인 남도임업(대표 고영석)이 공동으로 광양지역 대기환경 등 생태조건에 적합한 맞춤형 환경정화수종을 개발하기로 하고 최근 샘플링을 하는 등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산림과학원은 최근 수년간의 연구결과에 환경정화수종 육성기술을 개발해, 남도임업에 이전했다. 또 산림과학원 이재천 박사를 주축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

흡수 증진을 위한 수종육성연구팀’을 구성하고 남도임업과 공동으로 광양지역에 적합한 구체적인 환경수종개발에 착수했다.

연구팀은 수종개발을 위한 샘플링을 목적으로 지난 12일 광양 백운산 일대 조림지에서 60년생 편백, 삼나무, 리기다소나무 등 5종 25그루를 벌채했다.(사진)

이들 5종의 나무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온상승에도 우수한 생장력을 보이는 등 환경적응력이 뛰어난 수종으로 특히 남해안 일대에서만 좋은 생장 적응력을 보여 아주 좋은 샘플로 평가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도서벽지 초중생 온라인 영어학습

도, 내달부터 원어민 교사 부족한 5개 시군 시범 실시

다음달부터 전남지역 5개 시·군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영어학습이 시범 실시된다.

전남도는 “도서벽지 초·중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도·농간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9월부터 여수,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도서벽지 시·군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어학습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16일부터 18일 까지 고흥군교육청을 시작으로 5개 시·군 지역교육청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영어학습

시범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전남도와 협약을 체결한 (사)한국교육평가원(이사장 조응호)과 (주)한국교육콘텐츠정보(대표 정진영)가 공동 주관하며 도서벽지 저소득층 초·중학생 180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에 필요한 장비와 학습방법을 설명하게 된다.

온라인 영어학습 시범사업은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학생들은 개인 컴퓨터와 인터넷 시설이 완비된 가정, 학교 등에서 동일한 시간

에 온라인 학습관리팀의 학습지도와 관리를 받으면서 학습할 수 있다.

박만호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부터 온라인 영어학습을 실시하고 학습효과 평가를 통해 단계별 확대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농어촌 학생들의 영어체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부터 4년제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중학교에 원어민 강사 20명을 배치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영어교육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

광양 한국컨부두공단 대대적 조직개편

2개 본부·6개 팀 체제로

광양 소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이상조)이 최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다.

조직개편 내용은 2개본부·7개 팀 체제에서 1개 팀(항만기획팀)이 항만 시설팀으로 흡수되면서 2개본부·6개 팀 체제로 바뀌고 일부 팀의 업무영역 등을 조정할 것이 골자다.

이번 개편은 경영선진화 및 효율적인 항만공사 전환에 대비해 자체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인력 부족에 따라 전직원의 역량결집을 위한 핵심기능만 유지할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대외 환경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경영개선 및 비상 경영체제 방안으로 부두운영 기능 강화, 전사적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광양항 활성화를 조기 달성한

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컨공단은 “항만공사로 전환을 앞두고, 최근 구조조정을 실시해 전체 직원 70여명 중 20여명이 희망·명예 퇴직 등의 형태로 인원이 감축된 데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컨공단의 주요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건설 중심에서 운영중심으로 조직전환을 통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공단을 올해까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전환키로 하고 준비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진도군 ‘검정쌀’ 명품화 박차

진도군이 지역 특산 ‘검정쌀’을 명품 쌀로 육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도군은 ‘진도 검정쌀 글로벌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2010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12년까지 3

년간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 검정쌀 통합 마케팅을 위한 판매·가공·유통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전남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진도 검정 쌀은 1000여 농가가 1639ha에서 매년 9178t을 생산, 15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플러스부동산

년 수익률 10%이상책임보장 1억직접투자 시 년 1000만원이상소득가능

경·공매 컨설턴트 전문상담

일반 상업용 건물, 상가, 권리분석, 임야영리 계획 작성! 전국·국·공유지 공매 철도청, 산림청, 교육청, 국방부 기타등

노후 대책 최상의 수익사업 ???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은 투자 가치가 없다

T.062-226-3377 FAX.226-3389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 - 1,300만원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사형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⑤ 상무신도심 중심 상업 빌딩가
※ 10층 신축건물용 코너

T.881-5888 H.011-801-5854 (사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소남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일 분 손님이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영주역 신본영, 대인동 상무빌딩가)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할인 최대 28% 적용)

<층 1096세대> 분양률 95%이상 입주률 80%이상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111㎡(구, 33평) 로얄층 / 164㎡(구, 49평) 로얄층 191㎡(구, 58평) 로얄층 다수 보유

- 142㎡(구, 43평) 로얄동 / 로얄층
▶ 112동 1102호 ▶ 113동 1004호
▶ 112동 1201호 ▶ 114동 1101호
▶ 112동 1202호 ▶ 114동 1301호
▶ 112동 1302호 ▶ 114동 1401호
▶ 112동 1402호 ▶ 123동 402호

최대할인금액 6천만

■ 주변 쇼핑타운 / 교통요충지 / 재개발 예정지로서 투자기회 상승 기대 최근 대e-편한세상이 우수 건설사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입주자들의 찬사를 받고있는 대단지 명품아파트임.

☎ 탐공인중개사 ☎ 대림124동 후문 입구 ☎ 062) 367-1232 / H.P 010-2587-8552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아담공인중개사

서광주역부근 자연녹지

• 서구 박진동 서광주역 인근 6,561㎡(1,985평), 3.3㎡당 52만원, 자동차반려시설, 차고지 1기

합평 손볼 비닷가 전원주택(교환가능)

• 합평군 손볼면 월천리 안호수욕장 인근 대지 및 전 14,370㎡(4,347평) 연면적 178㎡(53평), 2층, 교환 가능함, 조망권 양호, 앞에 서해바다가 펼쳐있음, 아파트와 교환가능 매가가 3억

쌍촌동 내대지

• 서구 쌍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정공관사 1,846㎡(558평)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리로 매가가 3.3㎡당 160만원, 종교시설, 요양원역지.

호남대(서북)부근 자연녹지

• 광산구 신림동 호남대앞 3,458㎡(1,046평)3.3㎡당 110만원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원료, 조망양호.

침단 보훈병원앞 자연녹지

• 광산구 신림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60만원, 자연녹지 지역, 분할가능, 전원주택, 요양원시설, 기타.

무등산 전원주택지

• 북구 회암동 대지433㎡(131평), 전임1,994㎡(603평) 구주책2동, 대지가 1억8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건물구합(병원, 요양원, 리모델링용) 광주시내 전지역, 연면적 1,000평이상.

☎062-233-2222 / 010-3616-8698